



## “여름꽃 활짝 핀 강진서 신나는 반값여행 즐겨요”

### 여기가 핫플 ‘강진’

여름꽃이 활짝 핀 주말이면 어디로 떠나야 할까. 남도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광 도시 강진이 답이다. 봄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 이르러 강진에서는 꽃 축제가 열린다. 이름하여 ‘제3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Days’다. 이어 강진수국길꽃 축제도 나들이객을 맞이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2년간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강진반값여행이 시작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2026 강진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이 관광객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반값여행과 제3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Days, 제4회 강진수국길꽃축제를 들여다봤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본격 시행**  
대통령도 주목하고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반값여행 원조 1번지 강진군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함께하는 ‘2026 강진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 우수사례로 주목받은 강진 반값여행이 국가사업으로 확장된 가운데, 강진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 운영에 나선 것이다.

‘2026 강진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은 강진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일부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오는 8월까지 여름 휴가철 기간 운영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 관광객 특별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눈길을 끈다. 강진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1992년 4월 1일~2007년 4월 1일 출생자)이 혼자 강진을 여행할 경우 총 3만원 이상 소비 시 사용금액의 70%, 최대 14만원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강진 반값여행과 동일하게 일반 관광객은 사용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최대 10만원, 팀(2인 이상)은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Chak) 가맹점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지원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신창대표자가 구매한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거래내역만 인정되며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숙박업소 이용금액은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도 인정된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 소비가 실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강진형 상생 관광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관광객은 강진군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1회 참여할 수 있다. 기존 ‘2026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을 이용한 관광객도 이번 ‘2026 강진 반값여행’에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2026 강진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지침에 따라 강진군 인접 지역인 완도군,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지난 3년간 반값여행 정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소비 촉진이라는 새로운 관광정책 모델을 제시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청년층 혜택 최대 70% 지원 코끼리마늘꽃 3Days 이어 강진수국길축제까지 힐링 어린이 물놀이장 등 가족단위 관광객 즐길 콘텐츠 강화

**△보랏빛 향연 ‘제3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Days’**  
매년 6월이 되면 보랏빛 꽃밭이 장관을 이루는 강진군 작천면 부흥마을에서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3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Days’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끼리마늘꽃 군락지를 배경으로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주도형 행사로 운영된다.

행사장에 들어서면 보랏빛 코끼리마늘꽃이 끝없이 펼쳐진 장관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여기에 해바라기와 버들마편초, 나비바늘꽃 등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 초여름 정원을 연상케 하며, 곳곳에 조성된 포토존은 함께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꽃 감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갈릭피자 만들기과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이 마련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코끼리마늘꽃과 커피가루를 활용해 만든 꽃바구니 체험은 자연의 향기와 감성을 함께 담



수국길축제 모습

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장도 운영된다. 행사장 중앙광장에 마련된 물놀이 공간은 초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특별한 심터가 될 전망이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무료로 인화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돼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먹거리와 살거리도 풍성하다. 행사장에서는 닭가죽과 냉면국수 등 지역 특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옥수수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즐길 수 있는 마을 장터도 운영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부흥마을에서 생산한 코끼리마늘과 카무트, 팥 등 농산물도 판매된다.

이번 행사는 코끼리마늘꽃 군락지를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4회 강진수국길축제 26일 개막**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강진군 강진읍 보은산 V랜드 일원에서 제4회 강진수국길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뷰티풀 수국, 뷰티풀 강진’을 주제로

수국 정원과 감성 포토존, 공연, 체험, 먹거리까지 다채롭게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축제장 곳곳에는 다양한 색깔의 수국 정원과 수국 꽃길, 감성 포토존, 그린 터널 등이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인생사진 명소를 선사할 예정이다.

개장식은 26일 오전 11시 V랜드 분수광장에서 열린다. 수국 아치 걷기와 어린이 꽃 전담 퍼포먼스, 수국길 동행 행사 등이 진행되며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주무대에서는 ‘수국 라이징 스타 : 강진의 별’ 재능경연대회가 열려 약기·노래·댄스분야 참가자들의 열띤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온실광장에서는 재즈와 통기타, 팝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이 이어져 여름밤 감성을 더한다. 어린이를 위한 마술공연 등 퍼포먼스 공연도 마련되며 가족 단위 관광객에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반값여행 열광행사



반값여행 식당



반값여행 백운동원

체험 프로그램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축제기간 특별 개장되는 V랜드 물놀이장에서는 팀별 물총서바이벌 게임인 ‘워터 블! 수국 수호대 서바이벌’이 진행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예정이다. 보은산 일원에서는 스램프 투어 형식의 에코 트레킹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플로깅과 미션 수행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국 천연 염색 체험, 사색 방한재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 수국길 인생샷 사진 인화 서비스, 느린 수국 우체통 등 감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단순 관람을 넘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등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연계 행사도 눈길을 끈다. 축제기간 동안 V랜드 내에서는 황토맨발길 걷기 체험이 함께 운영된다. 또한, 강진읍 상권과 연계한 페이백 이벤트도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축제장에서는 강진 화훼농가 꽃 판매와 농특산물 판매장, 노을장 플라마켓, 푸드트럭, 음식부스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함께 마련된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gwangnam.co.kr